

Issue Comment

- ✓ Rosebank 수주전에서 대우와 셸코프마린이 최종 경쟁중
- ✓ 탈락한 현대와 삼성의 주가는 7월 9일 약세를 보였음
- ✓ 작년부터 잇따른 해양플랜트 수주 실패로 우려감 재부각중

다시금 불거지는 한국 해양플랜트 경쟁력의 위기

글로벌 E&P 업체인 Chevron 이 발주하는 Rosebank FPSO 수주전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싱가포르의 셸코프마린이 최종 경쟁중임이 확인되었다. 당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입찰에 참여했으나 중도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7월 9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쟁사인 셸코프마린이 작년 12월 Statoil 이 발주한 Johan Castberg FPSO 하부구조물과 Royal Dutch Shell 이 발주한 Vito FPU 물량을 한국 조선사보다 싸게 입찰해 수주에 성공한 업체로 최근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경쟁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 4월에도 BP 가 발주한 Tortue FPSO 마저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중국 COSCO 컨소시엄에 빼앗긴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Chevron Rosebank FPSO 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이후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전무하며 삼성중공업만이 작년 2건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Rosebank FPSO 에 대한 한국 조선사의 수주 기대감이 높게 형성된 것이 7월 9일 주가 약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작년부터 지속된 한국 조선사의 고부가선종 수주전에서의 고배

	상선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날짜	2017년 8월	2017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2월	2018년 4월	2018년 7월
발주처	CMA CGM	Statoil	Royal Dutch Shell	Statoil	BP	Chevron
선종	컨테이너선	FPSO	FPU	FPSO	FPSO	FPSO
프로젝트명	-	Johan Castberg (Hull Side)	Vito	Johan Castberg (Top Side)	Tortue	Rosebank
현대중공업 입찰가	\$15억	\$6억	입찰	입찰	입찰	입찰
삼성중공업 입찰가	-	\$595억	입찰	입찰(\$10억 추정)	입찰	입찰
대우조선해양 입찰가	-	\$575억	입찰	입찰	입찰	입찰
중국 입찰가	\$14억	-	-	-	\$10억 이하	-
싱가포르 입찰가	-	\$49억	수주	입찰	-	입찰
노르웨이 입찰가	-	-	-	₩5,200억	-	-

자료 : 언론자료 취합 주: 음영 국가가 낙찰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